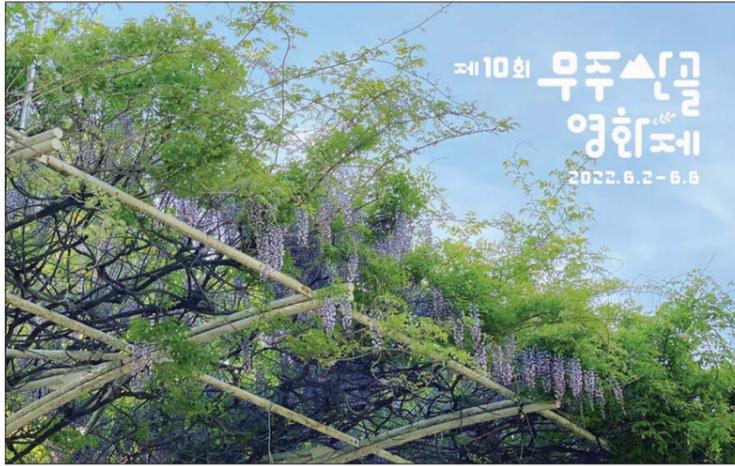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6월 2일 개막

6월 2~6일까지 개최... 2월 28일까지 한국장편경쟁부문 '창' 섹션 출품 공모

초여름 무주의 푸른 자연 속에서 좋은 영화와 다양한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낭만 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가 10주년을 맞이하여, 2022년 개최일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10주년 행사 준비에 나선다.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5일간) 개최되며, 1월 4일부터 한국장편경쟁부문 '창' 섹션 출품 공모를 시작한다.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가 오는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5일간) 개최된다.

영화와 문화를 사랑하는 여행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가 오는 6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6일까지 총 5일간, 제10회 영화제 기간을 확정 지으며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나섰다.

지난 2013년 6월, '설립-올림-어울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좋은 영화 다시보기'의 콘셉트로 처음 시작한 '무주산골영화제'는 그간 무주 속 자연을 스크린 삼아 전 세계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소중 같은 영화제로 사랑받아왔다.

2022년 10회를 맞이하게 된 '무주산골영화제'는,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낭만 가득한 문화 축제는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한 단계 성장한 모습으로 관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10주년을 기념하는 풍성한 프로그램은 물론, 관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도 다양하게 준비 중이다.

한편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는 4일부터 한국장편경쟁 부문인 '창' 섹션의 출품작 공모를

시작한다. '창'은 매년 한국영화의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장편영화상을 상영하는 '무주산골영화제' 유일의 경쟁섹션으로, 9~10편의 최종 선정작 중 우수작에게는 뉴비전상/감독상/영화평론가상/크리에이티브상/관객상 등 5개 부문 총 2,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출품조건은 2021년 8월 1일 이후 제작 완료된 60분 이상의 한국장편영화(영화제 상영작 또는

국내의 극장 개봉작 포함)로 장르에는 제한이 없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며, 영화제 홈페이지(www.mjff.or.kr)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출품신청서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및 사무국 프로그램팀(063-246-6401/이메일 mjffapply@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코로나19, 976명 예술가 시선으로 기록

해외에서의 자가격리, 1인 가정의 외로움, 요양원에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등 코로나19 상황의 현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만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 공모 결과 총 976건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일상적·사회적 상황을 예술가들의 창의적 시선으로 포착해 다양한 예술적 표현양식으로 기록, 그 결과를 공유하는 사업이다. 총 45억원 규모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아카이빙을 지원한다.

지난해 9~10월 진행된 공모에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3개 분야에서 총 3228건이

접수됐다. 이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적합성, 창의성, 구체성, 가치성 등을 평가, 최종 976건의 작품을 선정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을 기록하는 형태의 작품이 78.4%인 765건이었으며, 창작 작품은 21.6%인 211건을 기록했다.

연령별 선정 현황에서는 30대가 28.1%인 27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 200건, 50대 215건, 60대 155건, 70대 40건 등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고창군 판소리전수관, 상설국악교실 강사 위촉장 수여

고창군 판소리전수관이 올해 상설국악교실 6개 과목(판소리, 가야금, 고법·장단, 대금·단소, 농악, 한국무용) 강사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군에선 인취무형문화유산인 우리 소리를 이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설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판소리 명창공연, 판소리 최고 권위의 동리대상 시상, 어린이 판소리 왕중

왕 대회 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공연 등을 열고 있다. 특히 해마다 남녀노소 다양한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면서 군민들의 삶속에서 우리기락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다.

상설국악교실은 주 3회(월~수) 오후 3시, 4시, 5시, 7시에 판소리반, 가야금반, 고법·장단반, 대금·단소반, 농악반, 한국무용반 등 6개반의 수업이 이뤄지며 초등학교생부터 일반인

까지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다.

상설국악교실 수강료는 성인 월 1만원, 학생 5000원이다. 참여를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문화예술과(560-8065)로 연락하면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고창군수는 "고창에서 많은 예체능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동리정사 재현사업도 마무리해 예술이 살아숨쉬는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나폴레옹 전쟁은 어떻게 세계지도를 다시 그렸나

'나폴레옹 세계사'

프랑스 혁명전쟁은 1792년 시작해 1803년 나폴레옹 전쟁으로 이름을 바꿔 1815년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할 때까지 23년간 이어졌다.

통틀어서 '나폴레옹 전쟁'으로 불린 장기 무력 분쟁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에서 대규모이자 고강도 전쟁이었다.

식민지와 무역로를 차지하기 위한 유럽 열강들의 세계적 투쟁이었고, 그 영향력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으로 뻗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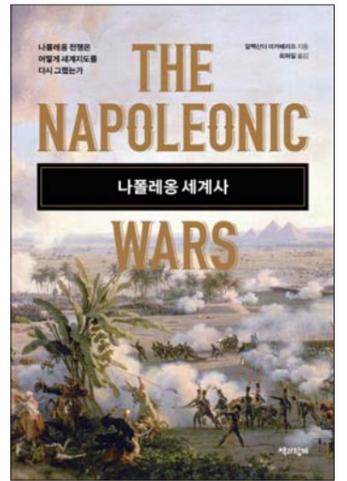
나폴레옹은 직간접적으로 남아메리카 독립의 원인을 제공했고, 중동을 재편했으며, 영국의 제국적 야심을 강화하고, 미국 세력의 부상에 기여했다.

'나폴레옹 세계사'(책과함께)는 나폴레옹 개인이나 나폴레옹 전쟁 자체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나폴레옹 전쟁을 세계사적 맥락으로 확대하는 책이다.

20년 넘게 나폴레옹과 나폴레옹 시대를 연구해온 알렉산더 미카베리츠는 이 책에서 프랑스 혁명전쟁과 함께 시작된 나폴레옹 전쟁이 결코 유럽 안에서 고립된 채 펼쳐지지 않았으며, 전 지구적인 반향을 낳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저자는 프랑스 혁명부터 나폴레옹 제국의 몰락과 그 후까지 훑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영향을 미친 과정을 서술했다.

/뉴시스



이 책에 실린 270여 쪽에 달하는 주석과 참고문헌이 방증하듯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과거와 최신의 자료를 망라하며 수년간 연구와 숙고를 거듭해왔다.

나폴레옹 시대의 세계적 권위자인 저자는 나폴레옹 연구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국제나폴레옹학회에서 공로 훈장을, '프랑스 르네상스'에서 공로상은 받은 저자는 이 책으로 2021년 길더트란 전쟁사 상과 미국 군사역사학회의 비미국부문 우수도서상을 받았다.

군산대 박물관,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우수상'

기획전시 '군산에 군산을 더하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2021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전시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대학박물관 대상 공모사업으로 전시와 교육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의 심사는 전문가의 현장 실사와 전시 기획자의 인터뷰, 서류 심사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졌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기획전시 '군산에 군산을 더하다'로 공모에 선정되었고, 8개월간의 준비로 지난해 11월 개관했다.

이번 전시는 군산지역에서 발굴조사된 후타지역의 수장고에 흩어져 잠자고 있던 100여 점의 중요 유물을 군산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16세기에 그려진 신사임당의 외손자인 조영의 '군산이우도'는 조영이 남긴 유일한 그림이자 군산을 주제로 하는 단 하나 밖에 없는 그림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군산사람들에게 처음 소개되는 작품이다.



군산대학교 박물관 야경.

정기문 박물관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대학박물관이 문화적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좋은 기회였다"면서, "이 기획전이 많은 분들에게 군산에 대해 더욱 깊게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수상을 기념하여 '군산에 군산을 더하다' 전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은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일요일은 휴관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